“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58호 HYUNBULNEWS.COM 2025년 12월 10일(음력 10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땅 파지 않고 유구 확인
폐사지 조사 새 장 열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국립문화유산연구원 MOU

GPR 활용 지하 유구 조사 가능
국립유산硏, 관련 기술 첫 협약
조사 비용 및 기간 단축 효과
“사지 조사 신뢰도 상승” 기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사진 오른쪽)과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를 최신 기술로 조사 연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소장 혜공 스님)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12월 3일 조계종 중앙신도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국 중요 폐사지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어 시급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폐사지 조사·연구·보존·활용에 이르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지난 9월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에 큰 특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물리탐사(GPR) 기술을 활용해 폐사지에 매장된 지하 유구를 비파괴 방식으로 조사하게 되는 점이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하투과레이더)은 지하로 레이더파를 방출해 반사되는 파의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지하 구조를 파악하는 비파괴 조사 기법으로, 최근 문화유산 조사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박윤정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고고연구실장은 “전면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가람 전체의 배치 상황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매장 유구들의 보존이 먼저 선행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효율성도 높아진다”면서 “지하물리탐사가 가장 잘 반응하는 매질이 바로 석재로 폐사지 조사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개발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과 협약은 맺은 바 있지만 GPR기술 관련 문화유산연구단체와 협약을 맺은 것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처음”이라며 “폐사지 전문 조사 경험이 많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GPR기술은 최고의 시너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석규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GPR기술은 개복 수술하기 전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과 같다. 넓은 범위에 분포된 폐사지의 유구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발굴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국 폐사지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교문화유산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사지는 불교 역사와 수행 전통을 밝히는 중요한 연구 자산인 만큼,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 △교육·체험형 콘텐츠 개발 △불교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과 연계한 활용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연구·활용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교문화유산연구원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향후 공동 학술대회 개최, 조사 성과물 발간, 전시와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조사 성과를 폭넓게 공유하고 불교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협력관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장 혜공 스님은 “전국의 폐사지는 오랜 세월 우리 불교사와 지역 공동체의 기억을 품어온 소중한 터전”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물리탐사와 학술조사가 결합된 과학적 연구가 이뤄지게 된다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지의 역사와 가치가 한층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임종덕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장점인 지하물리탐사 기술과 연구경험 및 정보의 접목을 통해 폐사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방치된 폐사지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처를 향해 나아가라”
행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12월 4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 일제히 동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석 달 간의 정진에 들어갔다.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내 부처를 찾는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방부를 들인 수

글 · 사진=하성미 기자 〈총림 동안거 결제 법회 현장 4면〉

종지협 공동대표의장에 진우 스님 재선출

종지협, 12월 2일 임시이사회서
진우 스님 “종교 상호존중” 강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18대 공동대표의장(이사장)으로 재선출됐다. 제17대에 이은 것으로, 진우 스님은 2022년부터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2월 2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에서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임시이사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 모두 참석했다.



공동대표의장 진우 스님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997년 10월 종교 간 화합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7개 종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종교 간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사회 통합과 공동선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열암곡 마애부처님, 실대형 모의실험서 30cm 양중 성공

12월 2일, 경주 시험장서
110톤 모형, 양중 시험 실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원형 훼손 없이 이동 및 입불하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대형 모의실험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고송문화재보존연구소는 12월 2일 경주 시내 설치된 시험장에서 ‘열암곡 마애불상 실대형 모의실험 연구’ 양중(揚重, 들어올리기) 시험을 실시했다. 시험에서는 약 110톤 규모의 실대형 모형이 유압장치를 통해 약 30㎝ 가량 올려졌다.

이날 시험 현장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과 총무원 문화부장 성원 스님, 임영애 동국대 교수가 실험 과정을 참관했다.

열암곡 마애불은 불상 상하부 공간이 극도로 협소해 전통적인 밧줄 설치 방식으로는 양중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불상 주변이 아닌 바깥쪽에 대형 프레임을 세우고 그 구조물에 유압 장치를 연결해 간접적으로 들어올리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실험의 핵심은 실대형 모형과 프레임 장비를 포함한 총 110톤을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가’가 목표였다. 시험은 목표한 높이까지 안정적으로 양중이 이뤄지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경주=하성미 기자

▶2면에 계속

